

##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

오화경\*

수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es on Shift work

Hwa Kyung Oh\*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Sus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으며,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0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였으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 9명을 대상으로 내용의 포화가 될 때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적용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4개의 범주는 '교대근무로 인한 변화', '성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 '미래를 위한 성장과 방향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과 남자간호사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 적응, 남자간호사, 현상학, 질적 연구, 교대근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interpret the practical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es working shifts an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September 2022 to November 2022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male nurses working at tertiary general hospitals, general hospitals, special hospitals and long-term care hospitals until content saturation. Data analysis was applied according to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and as a result of the study, 4 categories, and 11 theme were derived. The 4 categories consisted of 'Changes due to shift work', 'Difficulties arising from gender differences', 'Adaptation for job performance', and 'Growth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practical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es working in shifts, and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work environment improvement plans and male nurses' capacity building programs for nursing work.

**Key Words** : Adaptation, Male nurse,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 Shift work

\*Corresponding Author : Hwa Kyung Oh(blackspider7@naver.com)

Received December 22, 2023

Accepted January 20, 2024

Revised January 15, 2024

Published January 28, 202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1962년 최초의 남자간호사가 배출된 이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남자간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전체 간호사 중 남자간호사의 비율은 16.1%, 전체 남자간호사의 누적 인원은 24,546명에 달한다[1]. 남자간호사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료수준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간호사 수요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2], 이는 간호 전문성에 대한 인식변화로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소신 있게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3]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로 취업의 용이성과 직업적 안정성 등 간호직의 장점이 부각되어져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4].

하지만 남자간호사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교대근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및 간호 부서내 승진에 대한 한계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간호사는 여전히 여성의 직업이라는 성 고정관념이 주는 어려움으로 인해 남자 간호사들은 간호 전문성과 직업적 정체성을 갖추는 데 혼란을 겪게 된다[5-7]. 더욱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부분은 24시간 동안 입원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특히 남자 간호사들은 높은 수준의 간호업무와 신체적 힘을 요구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서 교대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8], 다른 일반병동과 비교해 대인관계와 간호행위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부서 배정은 남자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소모로 업무상의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심신까지 지치게 된다[9]. 또한 교대근무는 수면 패턴의 변화와 소화기계 증상,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의 증가를 초래하고[10] 높은 피로도를 보이며[11,12] 주간근무자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13]. 이는 간호사들의 피로회복과 건강에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자 간호사 중 약 36% 정도가 이직 경험이 있거나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14,15]. 남자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간호사 전체의 이직률로 연결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지면 간호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려 양질의 간호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인식되며[16] 새로운 간호 인력 확보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1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임상 현장에서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용도가 높아지면 대상자들의 다양한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고[18], 간호 임상 현장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간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전문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남자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고 [7],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간호사 진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용 경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여성이 주류인 조직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성별에 따른 성향 차이로 고립감을 경험함으로써 안정적인 실무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일이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일하는 곳으로 인식 되어져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며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마주한 실무 적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3,19,20], 직무만족[3,15,21], 조직몰입[20,22,23], 이직의도[17,21,22,24,25] 등의 양적연구가 다수 보고되었다. 또한 남자간호사의 근무 경험 및 실무 적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는 상급종합병원의 특수부서와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8, 26-33]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아닌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포함한 남자간호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남자간호사의 적용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임상 현장의 탐구되지 않은 적용의 측면을 규명하고 향후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용을 촉진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더 나아가 임상 현장의 근무 환경개선 방안과 간호 전문직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용

경험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으며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심층 면담을 통해서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에 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Colaizzi[34]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한 질적 연구이다.

###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D광역시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에서 1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춘 교대근무 남자간호사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를 위해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9명이었다. 이는 남자간호사의 시각으로 다양한 임상 현장의 적응 경험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6개의 근무지 형태와 8개의 근무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2.3 연구자 준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연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질적 연구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간호학과 교수 2인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또한 질적 연구와 관련된 다수의 서적과 논문을 정독하였으며 학문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병원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교대근무 간호사로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공감하는데 충분한 진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연구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일대일 대면으로 1시간~1시간 30분 정도 1차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 중 의미가 모호하거나 면담내용 재확인, 추가적인 질문 등을 위해 전화나 이메일로 2차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일정

과 장소는 참여자들과 사전에 조율하여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였고, 대화에 방해를 받지 않으며 편안한 분위기로 면담할 수 있도록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은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로 나아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의 주 질문은 “교대근무 남자간호사로 실무 적응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였으며, 보조 질문으로 “교대근무는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대근무 남자간호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거나 해결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대근무 남자간호사로 일하면서 경험한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습니다?”, “교대근무 남자간호사로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대근무 남자간호사로서 실무 관련 경험에 대해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등이었다.

### 2.5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 중에 Colaizzi[34]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무 적응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적 속성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단계는 면담시 녹음한 내용을 반복하여 주의깊게 들으며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필사하였고, 2단계는 필사된 내용을 수차례 읽어보면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절을 찾아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3단계는 참여자들의 주요 진술문 속에서 의미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구성하였고 4단계에서는 도출된 의미들 중에서 공통된 의미의 주제, 주제 묶음,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5단계는 주제에 따라 포괄적으로 기술하였고 6단계는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으로 확인된 현상의 본질적인 구조를 최종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참여자 9인에게 도출한 연구결과에 대한 동의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 2.6 연구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Guba와

Lincoln[35]의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참여자 9명 모두에게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분석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둘째, 적용성은 참여자들의 진술이 반복되어 더 이상의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까지 자료 수집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에게 연구결과를 보여주어 공감을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자료수집부터 분석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Colaizzi[34]의 분석 단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도출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판단중지’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연구결과 분석 시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성찰하였다.

### 2.7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서면으로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면담내용이 녹음되어 필사된다는 점, 녹음된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이 된다는 점,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과 자발적 참여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연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모든 자료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저장 후 각 문서마다 암호 처리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연구자가 직접 관리함을 재차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종료된 후 안전하게 파기할 것임을 당부하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이 끝난 후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3. 연구결과

교대근무에 임하고 있는 남자간호사 9명이 본 연구의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나이는 28~42세, 근무파트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정신과 등 특수부서와 일반병동이었으며 임상경력은 1년~ 13년이였다. 또한 근무지 형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정형외과 전문병원, 뇌혈관 전문병원, 화상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연구는 Colaizzi[34]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용 경험에 관한 본질을 탐색할 수 있었다. 추출된 진술문을 분석하면서 19개의 하위범주, 11개의 주제 그리고 이를 ‘교대근무로 인한 변화’, ‘성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업무수행을 위한 적용’, ‘미래를 위한 성장과 방향성’의 4개 범주로 도출하였다(Table 2).

### 3.1 범주 1. 교대근무로 인한 변화

#### 3.1.1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 증가

참여자들은 계속되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를 경험하였다. 남자 간호사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서 교대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여자 간호사들이 교대근무를 꺼림으로써 남자라는 이유로 밤근무 하는 일수가 많다 보니 그로 인해 수면 부족과 만성피로 증가, 개인 시간활용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병원 근무 자체가 교대근무다 보니, 내가 N 근무를 안하게 되면 누군가 내 N 근무 갯수를 가져가게 되고... 피로는 자꾸 쌓이는데... 말하기는 눈치 보이고 동료한테 피해주진 싫습니다.”(참여자 2)*

*“저는 같은 병원에서 7년째 교대근무 중입니다. N 근무는 줄어들지 않고... 상황은 변함이 없네요. 밤낮이 바뀐 터라 가끔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청하곤 합니다... 정말 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

Participants	Age	Clinical experience (yea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Hospital type	Working department
1	28	1	Bachelor degree	Single	General hospital	Emergency room
2	38	5	Bachelor degree	Single	Special hospital	Orthopedics
3	35	8	Master	Single	Long-term care hospital	General ward
4	29	3	Bachelor degree	Single	Special hospital	Neurosurgery
5	42	10	Bachelor degree	Single	Special hospital	Burn surgery
6	34	7	Bachelor degree	Married	General hospital	Rehabilitation ward
7	31	4	Bachelor degree	Single	Tertiary general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8	40	13	Bachelor degree	Married	Long-term care hospital	Rehabilitation ward
9	34	5	Bachelor degree	Single	Tertiary general hospital	Psychiatric ward

Table 2. Categories of practical adaptation experience of shift working male nurses

Categories	Theme	Sub-categories
Changes due to shift work	Increased mental and physical energy expenditure	Continuous shift work causes lack of sleep and chronic fatigue
		Conflicts with other medical staff
	Burde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ess caused by patients and guardians
		Tension and discord between colleagues
	Efficient use of time	Finding my life through the benefits of shift work
Difficulties arising from gender differences	Restrictions on nursing practice	Limited situations in which nursing actions performed by male nurses may be refused
	Differences in adaptation within an organization due to gender	Difficulty adapting to an organization dominated by women
Adaptation for job performance	Full of confidence as a male nurse	Good for working with strong physical strength
		As a man, I feel confident and provide strength to fellow male nurses
	Maintain rapport with patients	Nursing is easier than before
		Reduced awkwardness around male nurses
Settled as a member of the nursing organization	Promoting friendship	
	Understanding other people's perspectives	
Growth and direction for the future	Reward and pride in nursing work	Feeling rewarded from performing work
		Nurses are recognized as lifelong, stable jobs
	Constant worries about the future	uncertainty about promotion
		Establishing oneself as a male nurse
Continuous efforts to move forward	Strengthening capabilities through self-development	
	Considering changing jobs through various experiences and learning	

들어요.”(참여자 6)

“교대근무 중에서도 N 근무를 좀 더 하다보니 개인시간 할애하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개인마다 리퀘스트가 있어 의도치 않은 날 N 근무를 하게 되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약속 잡기가 애매하더군요...”(참여자 9)

### 3.1.2 대인관계의 부담감

참여자들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로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남자간호사들은 야간에 환자 컨디션이 떨어져 노티하는 과정에서 의사와의 갈등을 겪으며 여자간호사에 비해 남자간호사에 대한 인색함을 경험하였고, 간호조무사와 일 처리 도중에 불화가 있었음을 응답하였다. 또한 환자 및 보호자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표현하였다.

“밤근무 당시 환자분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주치의한테 노티했더니 왜 당직의를 놔두고 본인한테 연락했냐며 대뜸 화를 내는 겁니다... 당연히 주치의가 환자 상태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참가자 4)

“요양병원에는 오래 근무한 AN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저한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라며 아들 대하듯이 오지랖 넓게 훈수 두는 분들이 있어 선을 넘을 때마다 싸울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참가자 2)

“근무하다 보면 사망하시는 분이 낮보다 밤이나 이른 새

벽에 많이 발생합니다. 데이 근무에는 수선생님이나 고연차 선생님이 계셔서 보호자한테 상황설명을 잘 말씀해 드리지만 나이트 근무할 때 특히 까칠한 보호자와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하고 위로해 드려야 하는지 아직은 저한테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참여자 4)

### 3.1.3 효율적인 시간활용

참여자들은 불규칙한 근무이기는 하나 교대근무의 이점을 통해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경험하였다. 교대근무가 마냥 나쁜 것만이 아닌 긍정적으로 되돌아보면 자신의 삶을 소소하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좋은 거 같습니다. 남들 쉴 때 일하더라도 남들 일할 때 쉴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 아니겠습니까? 평일에 연차 내서 동기들과 함께 여행 다녀오면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아 좋고 스트레스도 더 빨리 풀리는 듯 합니다.”(참여자 2)

“근무하는 곳이 대학병원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일의 강도가 조금은 수월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근무할 때는 잠깐의 여유가 생기는 터라 짬짬이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은 간호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준비중입니다.”(참여자 3)

### 3.2 범주 2.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 3.2.1 간호행위의 제한

참여자들은 예전부터 '간호사는 여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환자의 유치도노관 관리, 관장, 욕창 관리, 여자병실 출입, 근육주사를 놓기 위해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등이 있었다. 일부 환자는 남자간호사라서 첫 대면시부터 불편해했으며, 여전히 남자간호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아침출근 후 모닝케어 하려고 여자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리 남자간호사라도 여자병실에 볼썽 들어오는건 실례가 아니냐... 남자병실만 맡아서 해라... 아무리 환자라도 우리도 여자다...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참여자 5)

*"컨디션이 떨어져서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중년의 남자 환자에게 IV start 하려는 순간 남자말고 여자간호사 없냐고... 남자간호사는 정신병원에서 일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참여자 8)

#### 3.2.2 성별에 따른 성향으로 인한 조직내 적응의 차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로 근무하며 여자간호사와의 성별에 따른 차이로 조직내 적응을 하거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특히 남자간호사는 대부분이 여자인 조직내에서 직설적이고 무뎠던 호응으로 조직내 적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남자간호사는 업무수행이 느리고 꼼꼼하거나 세밀한 정도가 여자간호사와 다르다는 차이를 느꼈다.

*"병동에 있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웬만하면 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여자 선생님들이 환자나 보호자에 관한 얘기나 일상적인 대화를 스스럼없이 나누는 걸 보면 조금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하하."*(참여자 7)

*"출근하면 일적인 부분 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잘못 했다가는 구설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자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참여자 6)

### 3.3 범주 3.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

#### 3.3.1 남자간호사로서 자신감 충전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로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당당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 힘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나 남자간호사로서 간호조직내 일원으로 무엇인가 기여했을 경우 그리고 동료 여자간호사보다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얘기 들었을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건 몰라도 체력 하나는 여자 선생님들보다 자신 있습니다. 어느 날 N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데 원무과 직원분이 이제 출근하냐고 묻더라고요... 아직은 썩썩해 보이 나 봅니다. 하하하..."*(참여자 2)

*"중환자실에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공대 다니다 간호학과에 들어왔기에 아무래도 기기 다루는 면은 여자 선생님들보다 조금 더 능수능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면 어께가 절로 으쓱거려요."*(참여자 7)

#### 3.3.2 환자와의 친밀감 유지

참여자들은 신규간호사일 때보다 시간이 지난 뒤 환자와의 친밀감 유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환자 곁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차츰 경험이 쌓이고 나 자신부터 마음을 열고 환자한테 다가서니 친밀감이 상승했다고 하였다.

*"가끔 노인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목소리도 크고 친철헤 포박포박 얘기해 드리면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나이트 근무할 때 이른 아침 환자분들에게 잘 주무셨냐고 인사드리면 우리 가족이나 친지한테 문안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참여자 3)

*"경상도 남자라서 무뎠을 줄 알았는데 남자 선생님 얘기도 잘하고 너무 좋으며 출퇴근마다 반겨주는 환자들을 보면 다들 내 편인거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치할 때는 긴장이 덜 되긴 해요."*(참여자 4)

#### 3.3.3 간호조직의 일원으로 안착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간호조직의 일원으로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동료 간호사의 위로는 공감대 형성과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선후배 남자 간호사들과 친목도모를 자주하며 서로의 고충을 얘기 나누다 보면 힘든 병원 생활이지만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첫 입사 때부터 매번 되뇌고 있어요... 일년만 버티자... 딱 일년만... 그러다 보니 어느덧 7년차 간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거 같아요.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한 발 다가서니 이래저래 시간이 흐르는 듯 합니다.”(참여자 6)

“우리 남자간호사들은 당구, 볼링 등을 치면서 친목 도모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보공유도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통해 서로 위로가 됩니다... 특히 사적인 자리에서는 형, 동생하며 선후배 남자 간호사들이 함께해서 힘이 팍팍 납니다.”(참여자 1)

“같은 병동에 남자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근무는 겹치지 않지만 많은 대화가 오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존재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참여자 4)

### 3.4 범주 4. 미래를 위한 성장과 방향성

#### 3.4.1 간호사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참여자들은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할 때 간호사로서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힘들기는 하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치유된다면 내 자신도 힐링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평생직으로 삼아도 후회하지 않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병원 출근하는데 제 앞으로 떡 한 상자가 배달되어 있습니다. 무슨 떡이냐고 여쭙보니 퇴원한 할머니께서 그동안 육창 치료하느라 고맙웠다고... 노인 치고는 체구가 커서 미안했는데 듬직한 남자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해준 덕분에 많이 나아서 보내주신 거라고 합니다.”(참여자 2)

“젊은 남성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내원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출혈도 심하고... 걸어서 퇴원 못하겠구나 느꼈죠. 지금은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받고 있어요. 한 번씩 워터 밀며 담배 피러 나오는데 형과 아우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참여자 1)

#### 3.4.2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고민

참여자들은 면허만 있으면 어느 병원이든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폐이와 간호부서내 승진의 어려움을 생각하였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임상에 오래 남아있는 남자간호사가 드문 데다가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이 작은 규모의 병원 내 복지 부분의 한계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막연한 불안을 경험하였다.

“남자간호사로서의 자리매김과 승진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오래도록 근무한 남자 선배들을 보면

아직 일반 간호사로 있거나 차지를 맡고 있습니다.”(참여자 9)

“같은 과 선후배로 만나서 결혼한 지 일 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괜찮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면 교대근무로 이 정도의 월급을 받고 사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참여자 6)

“조금 부끄러운 얘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은 남자간호사 탈의실이 없습니다. 지하 식당 옆 조그만 방에서 남자 간병사들과 함께 옷을 갈아 입습니다.”(참여자 3)

#### 3.4.3 앞을 향한 부단한 노력

참여자들은 연차가 쌓이고 근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부단한 노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 강화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배움을 통해 이직을 고려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간호사라는 든든한 면허가 있기에 이를 통해 내년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참여자 2)

“학생 때부터 영어과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학 다녀온 건 아니지만 현지인과 대화하는 데는 문제 없어요... Nclex에 도전하여 미국으로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참여자 5)

“이제 병동 일에도 익숙해지는 것 같고... 제 자신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신 분야 쪽으로 좀 더 파고들어 연구하면서 대학교수를 최종목표로 염두해두고 있습니다.”(참여자 9)

## 4. 논의

본 연구는 9명의 교대근무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실무 적응 경험을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으며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대근무로 인한 변화’, ‘성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 ‘미래를 위한 성장과 방향성’의 4개 범주, 11개의 주제 그리고 19개의 하위범주로 도출하였고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번째 범주는 ‘교대근무로 인한 변화’로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 증가’, ‘대인관계의 부담감’,

‘효율적인 시간활용’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계속되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를 경험하였다. 남자 간호사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서 교대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여자 간호사들이 교대근무를 꺼림으로써 남자라는 이유로 밤 근무하는 일수가 많다 보니 그로 인해 수면 부족과 만성피로 증가, 개인 시간활용의 어려움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연구[8]는 국내에서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교대근무가 수면, 피로, 우울,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다[37, 38]. 또한 교대근무를 통하여 대인관계의 부담감을 경험하였으며 다른 의료진과의 갈등,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스트레스, 동료 간의 긴장감과 불화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17, 18]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불규칙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교대근무의 이점을 통해 효율적인 시간활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가 마냥 단점만을 지닌 것이 아닌 강력한 장점으로 조율 되어져 자신의 잃어버린 삶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두번째 범주는 ‘성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간호행위의 제한’, ‘성별에 따른 성향으로 인한 조직내 적응의 차이’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예전부터 ‘간호사는 여자’라는 편견으로 인해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일부 환자는 남자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불편해 했으며, 여전히 남자간호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남자간호사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19, 20, 36]와 유사한 결과이며 성 고정관념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고[19], 조직몰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간호행위를 거부당한 남자간호사의 경험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다[36].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로 근무하며 여자간호사와의 성별에 따른 성향으로 인한 조직내 적응을 하거나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차이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특히 남자간호사는 여성이 주류인 조직 내에서 직설적이고 무뎠던 반응으로 조직내 적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으며, 남자간호사는 업무수행이 느리고 꼼꼼하거나 세밀한 정도가 여자간호사와 다르다는 차이를 느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성 역할갈등과 관련된 연구[18-21, 23]가 있었으며, 성 역할 정체감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편

견에 영향을 미치고[19], 성 역할갈등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0, 23]. 특히 성 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있었다[21]. 이를 토대로 성 고정관념 및 성 역할갈등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대중매체 및 간호협회의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남자간호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세번째 범주는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이며 ‘남자간호사로서 자신감 증진’, ‘환자와의 친밀감 유지’, ‘간호조직의 일원으로 안착’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남자간호사로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당당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신체적 힘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남자간호사로서 간호 조직내 일원으로 무엇인가 기여했을 경우 그리고 동료 여자간호사보다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얘기 들었을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자간호사의 자신감은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며[27, 33, 39]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자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여자들은 신규간호사일 때보다 시간이 지난 뒤 환자와의 친밀감 유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환자 곁에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차츰 경험이 쌓이고 나 자신부터 마음을 열고 환자한테 다가서니 친밀감이 상승 되더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간호조직의 일원으로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동료 간호사의 위로를 통해 교대근무를 지속할 수 있었다. 특히 선후배 남자 간호사와 친목 도모를 자주 하며 서로의 고충을 얘기 나누다 보면 큰 힘이 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7, 33]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네번째 범주는 ‘미래를 위한 성장과 방향성’이며 ‘간호사 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고민’, ‘앞을 향한 부단한 노력’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할 때 간호사로서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힘들기는 하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가 치유된다면 내 자신도 힐링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이것을 평생직으로 삼아도 후회하지 않음을 느꼈다고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26, 27]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



며 간호업무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은 간호의 수준을 향상시켜 간호 전문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면허가 주는 장점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라 할지라도 임상에 오래 남아있는 남자간호사가 드문 데다가 임상 경력이 쌓일수록 급여 부분에 대한 만족을 충족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상급종합병원[27], 중환자실[33]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험을 연구한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같이 작은 규모의 병원은 업무 대비 낮은 보수, 예상과는 다른 과중한 업무, 불명확한 간호업무의 규정, 의사의 업무 대행과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역할갈등 그리고 복지 부분의 한계로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을지 막연한 불안을 경험하였다. 그러므로 병원의 규모와는 별개로 그들의 간호사 진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근무환경 및 복지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연차가 쌓이고 근무환경에 익숙해지면서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부단한 노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강화와 다양한 경험 그리고 배움을 통해 이직을 고려하는 모습들이 보였으며 선행연구[26, 33]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기 계발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고 그 결과 남자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간호 전문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남자간호사의 임상 업무 및 적응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자 간호사들은 임상 현장에서 남자간호사가 아닌 간호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심히 고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음을 짐작해 본다. 또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의 본질을 현상학적 연구로 밝히고자 하였다. 9명의 참여자들과 자료의 포화가 될 때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은 4개의 범주 '교대근무로 인한 변화', '성별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업무수행을 위한 적응', '미래를 위한 성장과 방향성'으로 도출되었으며,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므로 전체 남자간호사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 참여자 확보를 통한 반복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둘째, 교대근무 남자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에 대한 이해와 본질을 탐색하였기에 간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방안과 남자간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직에서 남자간호사의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간호 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Korea Nurses Association. (2022). *Statistics of male nurses*. Korean Nursing Association(Online). <http://www.koreanurse.or.kr/resources/statistics.php>
- [2] Y. H. Oh. (2010). The Future Requirements and Supply of Registered Nurse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16(3), 139-161.
- [3] E. S. An & S. K. Chu. (2011). Study on Male Nurses' Gender Stereotype and Job Satisfaction. *Korean Academy Administration*, 17(1), 14-21. DOI : 10.11111/jkana.2011.17.1.14.
- [4] S. Boughn.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22(1), 14-19.
- [5] R. J. Meadus & J. C. Twomey. (2007). Men in nursing: making the right choice. *Canadian nurse*, 103(2), 13-16.
- [6] J. Evans. (2004).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3), 321-328.
- [7] Y. R. Park. (2009).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6(4), 449-458.

- [8] J. Evans. (1997). Men in nursing: issues of gender segregation and hidden advant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2), 226-231.
- [9] C. S. Park. (2002). Factors Influencing on Burnout Experience in Working Nurses at Hospital.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8(4), 550-558.
- [10] L. Culpepper & M. Md. (2010). The social and economic burden of shift-work disorder. *The Journal of Family Practice*, 59(1), S3-S11.
- [11] Y. O. Seo & S. Y. Kim. (2016). Influencing factors on the nurse's shiftwork tolera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5(4), 373-383.  
DOI : 10.5807/kjohn.2016.25.4.373
- [12] Y. H. Shin et al. (2018). Comparison of work-life balance, fatigue and work errors between 8-hour shift nurses and 12-hour shift nurses in hospital general ward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4(2), 170-177.  
DOI : 10.22650/JKCNr.2018.24.2.170
- [13] M. J. An, J. S. Kim, S. K. Heo, S. H. Kim & Y. Y. Hwang. (2018). Factors affecting sleep quality of clinical nurses working in a hospital.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30(2), 126-135.  
DOI : 10.7475/kjan.2018.30.2.126
- [14] C. Mackintosh. (1997). A historical study of men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2), 232-236.
- [15] H. J. Kim. (2010). *Job Stress and Satisfaction among Male Nurses in Daegu*. Master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Daegu.
- [16] B. Coomber & K. L. Barriball. (2007). Impact of job satisfaction components on intent to leave and turnover for hospital-based nurses: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4(2), 297- 314.
- [17] S. O. Kim & Y. H. Kang. (2016). A Prediction Model on the Male Nurses' Turnover Intentio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8(5), 585-594. DOI : 10.7475/kjan.2016.28.5.585.
- [18] H. M. Son, M. H. Koh, C. M. Kim, J. H. Moon & M. S. Lee. (2003).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1), 17-25.  
DOI : 10.4040/jkan.2003.33.1.17
- [19] J. H. Choi, C. H. Chang & S. S. Km. (2018). The Effects of the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n the Prejudice Against Male Nurses of Hospital Worker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2), 75-91.  
DOI : 10.5392/JKCA.2018.18.12.075
- [20] E. J. Lee & B. H. Park. (2018).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Stereotype, Role Conflic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ale nurses. *Korea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3(2), 67-81.
- [21] H. M. Hwang & M. J. Kim.(2017).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to Turnover Intention for Men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1), 32-41.  
DOI : 10.11111/jkana.2017.23.1.32.
- [22] M. K. Ahn, M. H. Lee, H. K. Kim & S. H. Jeong. (2015).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2), 203-211.  
DOI : 10.11111/jkana.2015.21.2.203
- [23] K. J. Lee & M. Y. Kim. (2014). The Relationship of Gender Role Conflict and Job Satisfaction up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Male Nurse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6(1), 46-57.  
DOI : 10.7475/kjan.2014.26.1.46
- [24] J. H. Kang. (2018). Factors Affecting Social Support, Emotional Exhaustion and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Leave of Mal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5(2), 175-183. DOI : 10.22705/jkashcn.2018.25.2.175
- [25] E. Y. Yeom & K. S. Seo. (2016).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Nursing Professionalism on Turnover Intention among Male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12), 794-804.  
DOI : 10.5392/JKCA.2016.16.12.794
- [26] S. H. Kim, S. J. Kim & H. K. Kang. (2017). Male Nurses' Adaptation Experiences in Clinical Nursing Setting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304-316.  
DOI : 10.5762/KAIS.2017.18.8.304

- [27] J. H. Kim et al. (2016). An Adaptation Experience of Male Nurses at General Nursing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5), 496-506. DOI : 10.11111/jkana.2016.22.5.496.
- [28] S. J. Park & M. A. Kim. (2022). Convergent Approach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bout Male Nurses' Adaptative Experience at PACU.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 415-424. DOI : 10.14400/JDC.2022.20.1.415
- [29] D. Rajacich, D. Kane, C. Williston & S. Cameron. (2013). If they do call you a nurse, it is always a "male nurse": Experiences of men in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forum*, 48(1), 71-80. DOI : 10.1111/nuf.12008
- [30] T. W. Wu, J. L. Oliffe, V. Bungay & J. L. Johnson. (2015). Male ICU nurses' experiences of taking care of dying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 gender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9(1), 44-52. DOI : 10.1177/1557988314528236
- [31] L. L. Herakova. (2012). Nursing masculinity: Male nurses' experiences through a co-cultural lens.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23(4), 332-350. DOI : 10.1080/10646175.2012.722822
- [32] S. Y. Shin. (2018). *Clinical work experience of male nurse with career*. Master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33] J. Y. Hong, S. N. Kim, M. J. Ju & S. K. Sohn. (2020). The Experience of Male Nurses Working in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6(3), 352-364. DOI : 10.22650/JKCN.2020.26.3.35
- [34] P.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 it existential phenomenolog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35] E. G. Guba & Y. S. Lincoln.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New York : Jossey-Bass.
- [36] G. H. Choi et al. (2018). Male Nurses' Experiences of Being Rejected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1), 16-28. DOI : 10.5977/jkasne.2018.24.1.16
- [37] B. M. Jeon & S. H. Kim. (2023). Influence of work environment on insomnia among night-shift worki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21-132. DOI : 10.7465/jkdi.2023.34.1.121
- [38] S. H. Shin & S. H. Kim. (2020). Influence of night shift work and sleep efficiency on fatigue, depression and turnover intension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1(2), 311-322. DOI : 10.7465/jkdi.2020.31.2.311
- [39] Y. O. Suh & K. W. Lee. (2017). Female Peer Nurse's Experiences Working with the Male Nurse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1), 33-44. DOI : 10.14370/jewnr.2017.23.1.33

오 화 경(Hwa-Kyung Oh)

[정회원]



- 2017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계명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수료)
- 2022년 4월~현재 : 수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만성질환관리
- E-Mail : blackspider7@naver.com